

- 지역연구세미나 자료 -

멕시코의 외국인투자환경과 한국기업 진출방안

2006. 12.

한국수출입은행

I. 국가 개황

1. 일반 개황

- 국 명 : 멕시코합중국(United Mexican States)
- 면 적 : 1,964천 km²(세계 14위, 한반도의 9배)
- 주 요 도 시 : 멕시코시티(17.8), 과달라하라(3.7), 몬테레이(3.2)
(인구:백만명)
- 인 구 : 1억 400만 명(2004년)
- 민 족 구 성 : 메스티조(80%), 백인(9%), 원주민(10%), 기타(1%)
- 종 교 : 카톨릭(89%), 기독교(6%)
- 기 후 : 고도에 따라 열대에서 사막기후까지 다양
해발 750m 이하의 해안 및 저지 : 고온다습지대
해발 750~2,000m : 온난건조지대
해발 2,000m 이상 : 저온지대
- 시 차 : 한국보다 15시간 늦음
- 정 부 형 태 : 대통령중심제(연방공화제)
- 독 립 : 1910. 9. 16.
- 국 가 원 수 : 깔데론 대통령(2006.12 집권, 임기 6년)
- 연 방 의 회 : 상원: 128석, 임기 6년 단임(32개주에서 각 3명씩 총 96명
선출, 32명은 비례대표 배분)
하원: 500석, 임기 3년 단임(300명은 직선, 200명은 정당
별 비례대표 배분)
- 행 정 구 역 : 31개주, 1개 연방구
- 주 요 정 당 : 국민행동당(PAN, 여당), 제도혁명당(PRI), 민주혁명당(PRD) 등
- 군 사 력 : 192,700명(육군 144,000명, 해군 37,000명, 공군 11,700명)
- 국 제 기 구 : UN, IMF, IBRD, IADB, WTO, UNCTAD, NAFTA, OAS 등

II. 정치·경제 동향

1) 경제 동향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e	2006 ^f
경제성장률	0.8	1.4	4.2	3.0	4.2
재정수지/GDP	-1.2	-0.7	-0.3	-0.1	0.5
소비자물가상승률	5.0	4.5	4.7	4.0	3.4
경 상 수 지	-13,544	-8,641	-6,631	-4,804	-1,600
경상수지/GDP	-2.2	-1.4	-1.0	-0.6	-0.2
상품수지	-7,633	-5,780	-8,811	-7,587	-3,800
수 출	161,046	164,766	187,999	214,233	248,000
수 입	168,679	170,546	196,810	221,820	251,800
외환보유액	49,895	55,740	62,778	73,015	83,800
총외채잔액	140,164	141,500	138,700	135,400	126,700
총외채잔액/GDP	21.6	22.2	20.3	17.9	15.8
D.S.R	23.3	21.7	22.9	14.2	16.2

□ 2004년 이후 성장세 회복

- 2004년 이후 미국경제 활성화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해외근로자의 모국 송금 증가로 인한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세 회복
- 금년 상반기에는 5.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수출 증가세 둔화로 금년 전체로는 4.2% 성장 전망

□ 물가는 정부 억제목표인 4%를 소폭 상회

- 물가는 최근 수년간 하향 안정화 추세 지속
- 금년에도 정부목표(3% ± 1%) 달성에 큰 무리가 없을 전망

□ 재정수지 흑자 전환 전망

- 재정수지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준 유지
- 국제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대와 긴축정책 지속으로 금년에는 재정수지 흑자 전환 가능할 전망

□ 수출 증가세 지속

- 2005년 수출은 고유가 지속과 일본과의 FTA 체결 등 수출다변화 정책에 힘입어 전년대비 13.9% 증가한 2,142억 달러 기록

□ 해외거주자 송금액 사상 최고 기록

- 2005년 멕시코의 해외거주자 송금액은 2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2,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거주 멕시코인들의 본국 송금액이 꾸준히 증가

□ 외채규모 꾸준히 감소

- 2005년 말 현재 총외채 규모는 GDP의 17.6%인 1,354억 달러이며, D.S.R도 14.2%에 불과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현황

- o OECD : 3등급(04. 6) → 2등급(05. 6) → 2등급(06. 6)
- o Moody's : Baa3 ('00.3) → Baa2 ('02.2) → Baa1('05. 1)
- o S&P : BB+ ('00.3) → BBB- ('02. 2) → BBB('05. 1)
- o Fitch : BB+ ('00.5) → BBB- ('02.1)

2) 정치·사회동향

□ 2006년 대선에서 깔데론 대통령 당선

- 금년 7월 실시된 대선에서 집권여당의 국민행동당(PAN)의 깔데론 후보가 35.8%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됨.
- 깔데론 후보는 폭스정부에서 에너지장관을 역임하였고, 친미적 시장경제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외국인투자기업과 경제계는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
- 그러나 2위를 차지한 민중혁명당(PRD)의 오브라도르 후보와의 표차가 23만표(유효표의 0.56%)에 불과하고, 오브라도르 후보가 광범위한 개표부정이 이뤄졌다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대규모 시위를 주도함에 따라 일부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가 실시되었으며, 재검표 결과 깔데론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지만 오브라도르 후보는 '저항의 정부'를 결성하는 등 여전히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집권여당인 국민행동당의 의석수(하원 500석 중 206석, 상원 128석 중 52석)가 과반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깔데론 정부도 에너지, 노동, 조세 등 주요 개혁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빈부격차와 치안불안 문제가 상존하나 소요사태로의 발전가능성은 낮음

- 금년 대통령 선거에서 북중부와 중산층은 깔데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부와 저소득층은 오브라도르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 이데올로기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빈부격차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치안불안이 심각한 상황이고,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이 지속되고 있으나, 심각한 소요사태로 발전하거나 정국안정을 위협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3) 국제관계

□ 대미관계 강화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 전개

- 깔데론 정부는 미국, 캐나다와의 기존 협력관계 유지 강화 및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고, 중남미 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한 역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마약거래, 불법이민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나, 친미 성향의 깔데론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대체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EU와 포괄적 협력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APEC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EU 및 아·태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4)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동향

□ 세계 주요 FDI 유치국가 지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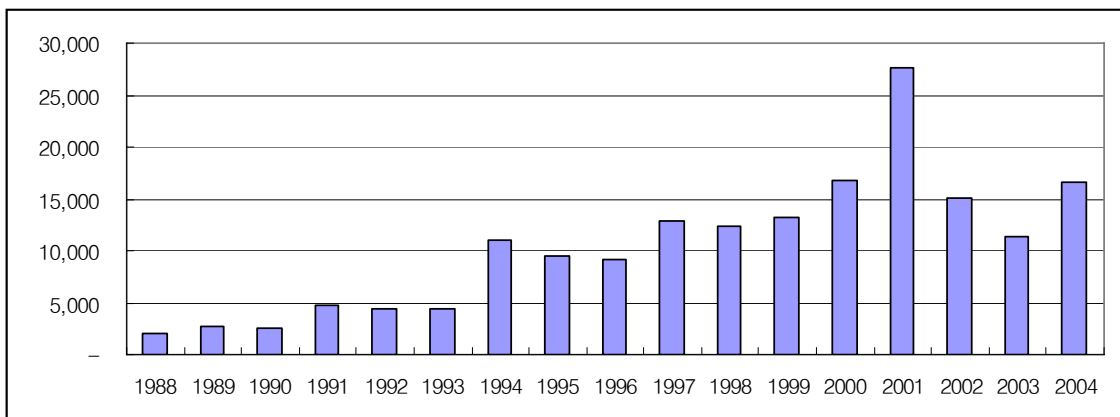
- 1994년 NAFTA 출범 이후 FDI 유입규모 급격히 증가
- 1988년 20억 달러에 불과했던 FDI 유입액은 1994년에는 11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276억 달러 기록
 - o 시티그룹의 Banamex 은행 인수, 스페인 BBVA의 Bancomer은

행 인수, 모토롤라의 Telefonica 무선사업 인수 등

- 2003년 멕시코의 FDI 유입규모는 개도국 중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세계 3위는 브라질로 101억 달러 기록)
- 미국이 전체 FDI 유입액의 82%를 차지

<그림 II-5> FDI 유입 추이(1988~2004년)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IMF, IFS에 의거 필자 작성

III. 외국인투자 환경

1.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

가. 외국인투자 정책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1989년과 1993년에 두 차례 외국인투자법을 개정, 일부 국가 전략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절차를 간소화함.

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 멕시코 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세감면 인센티브는 점차 축소시키고 있음.
- 주요 인센티브로는 수출촉진을 위한 수입관세 면제 및 가속감가상각 인정 등을 통한 간접적인 조세감면 인센티브, 개발은행의 우대금융 지원 및 창업투자 지원 등 금융 인센티브가 있음.

다. 외국인투자 절차 및 제도

1) 기업설립절차

-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① 외무부의 허가, ② 공증인에 의한 설립증서 작성, ③ 법원의 승인, ④ 설립등기의 절차를 밟아야 함.

2. 외국인투자 여건

가. 무역 및 관세제도

- 관세는 수출입 상품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인 CIF 가격에서 보험조건을 제외한 가격인 C&F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0~35% 수준임.
 - o 0% : 서적 등 교육목적에 사용되는 물품, 기계류, 반제품 등 멕시코 노동력이 있어야만 가치를 갖는 품목
 - o 3~5%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 o 10~13%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및 부품
 - o 15~18% :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본재 및 부품
 - o 23% : 일반 소비재
 - o 35% : 의류, 신발, 유리 및 가죽제품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소비재
- 무역규제제도 :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수입규제조치가 대부분이며, 수출에 대한 규제는 거의 두고 있지 않음.
- 수입규제제도 : 수입허가제, 쿼터제를 비롯하여 각종 행정규제가 있으며, 국가안보에 중요한 상품, 국제규약의 준수를 필요로 하는 상품, 환경규제 상품 등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제가 적용되고 있음.

나. 외환제도

- 자본유입, 자본회수, 이익 재투자, 이익 및 배당소득의 해외송금, 해외차입, 원금 및 이자상환, 로열티 및 수수료 지급 등 각종 자본거래에 대해서 외국인투자등록, 세금납부, 이익분배 등 소정의

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단, 음성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10,000달러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외국인에 대해서 페소화나 달러 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음. 법인은 멕시코 국내 어디에서나 각 은행에서 지정하는 최소한도 이상의 달러 계좌를 소유할 수 있으나, 개인은 북쪽 국경지방을 제외하고는 달러 당좌예금 계좌 소유가 불가능함.

다. 노동제도

- 노동력은 비교적 풍부하고(특히 청년층 인구비율이 높은 편임) 임금도 낮은 수준이지만, 숙련공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편임.
- 고용계약은 개별계약과 단체계약으로 구분하는데, 개별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개인간 계약이며, 단체계약은 고용주와 노동조합간의 계약을 의미하며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만 고용할 수 있는 Union Shop 제도도 단체계약에 의해 도입될 수 있음.
- 해고는 집단해고, 집단감원, 개별해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3개월간의 월급과 근무년수에 따라 매년 20일간의 추가급여를 지급해야 함. 근무년수가 12년이 넘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고용주는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해고된 근로자는 조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음.

IV. 한국기업 진출방안

□ 당행 주요 지원프로젝트 현황

단위 : 천 달러

	구분	프로젝트명	관련업체	자금종류	승인액
중 장 기 금 융	PEMEX 정유공장 개 보수	Cadereyta project (1차)	SK건설	제작금융	339,592
				역외자금	292,330
				채무보증	200,000
				이행성보증	2,111
		Madero project (2차)	SK건설	제작금융	521,346
직접대출	200,000				
Salamanca project (3차)	삼성ENG	직접대출	30,000		
이행성보증	8,538				
Tula project (4차)	삼성ENG	직접대출	24,000		
이행성보증	660				
Mintitlan project (5차)*	삼성ENG	직접대출	73,750		
채무보증	42,150				
해 외 투 자	LG전자 가전제품 진 출	냉장고 제조 해외투자	LG전자	사업자금	80,000
		가전제품 판매 해외투자	LG전자	사업자금	30,000
		냉장고부품제조 해외투자	성철사外	사업자금	10,500
	대우전자 가전제품 진 출	가전제품 제조 해외투자	대우전자	해투자금	18,190
		사업자금	26,000		
전자부품제조 해외투자	파츠닉	해투자금	2,700		

* 2005. 6. 2 예비승인

가. 진출확대 방안

1) 플랜트 부문

□ 우리업계 진출경험을 활용한 진출확대 노력 필요

-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플랜트 수주실적은 16건 702백만 달러이며, 대표적 프로젝트인 SK건설의 카데레이타 및 마데로 정유공장 프로젝트, 삼성엔지니어링의 툴라 및 살라망카 정유공장 프로젝트는 이미 완공되었음.

- 또한, SK건설의 깐따렐 질소 생산공장 증설 프로젝트와 삼성엔지니어링의 미나띠틀란 정유공장 프로젝트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등이 신규발전소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준비중임.
 - 멕시코 정부발주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프로젝트 사전정보 입수 노력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수주와 프로젝트 리스크 축소를 위해 단독입찰 이외에도 현지사정에 밝은 현지기업 및 기진출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방식의 진출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업계의 멕시코 프로젝트 이행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진출확대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프로젝트 사전정보 입수와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사무소 설치 등 현지 네트워크 구축 필요
- 멕시코에 기진출해 있는 일부 플랜트·건설 업체를 제외하고는 우리기업의 현지 네트워크가 취약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프로젝트 사전정보 입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부분의 플랜트·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공고 이전에 프로젝트 사업주와 EPC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지는 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사전정보 입수와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가 중요함.
 - 인터넷 검색을 통한 프로젝트 입찰정보 검색과 같은 소극적 노력만으로는 실제 프로젝트 수주가 어려운 바, 우리기업의 멕시코 플랜트 수주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사무소 설치와 같은 적극적인 진출노력이 필요함.

2) 제조업부문

□ 멕시코 내수시장 및 인접 중남미 국가들을 목표로 한 제조업 진출 확대 필요

- 멕시코는 인구 1억의 거대시장일 뿐 아니라 미국 및 중남미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중남미 비즈니스 허브 국가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對멕시코 수출 및 해외투자는 대미 우회수출을 목표로 한 경우가 많았으며, 멕시코 내수시장 진출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바, 멕시코 내수시장과 인접국가로의 수출까지 고려한 제조업 분야의 진출확대 노력이 필요함.

□ 중소기업협력업체의 동반진출 추진

- 對 멕시코 투자는 대기업 위주의 단독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주로 부품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여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삼성, LG 등 현지진출 우리나라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협력업체가 동반 진출하여 현지에서 직접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IDB 금융지원 프로젝트 적극 활용

- 그 동안 우리나라는 IDB 비회원국으로서 IDB 발주 프로젝트 참여가 원천 봉쇄되어 있었으나, 금년 3월 우리나라가 IDB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IDB 조달사업 참여가 가능해졌음.

- IDB 조달사업의 경우 건설공사는 500만 달러, 물품 및 용역은 3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IDB 국가별 지원순위 3위의 국가로서 연간 IDB 지원금액이 5~1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IDB 조달사업 입찰정보에 대한 정보검색과 입찰참여를 통한 멕시코 시장진출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 우리나라는 멕시코에 연간 약 28억 달러를 수출하는데 비해 수입규모는 3-4억 달러에 불과하여 멕시코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FTA가 실익이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여 FTA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멕시코와의 FTA 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투자 장려와 우리나라에서의 멕시코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 및 멕시코 산 상품수입 증대를 위한 구매사절단 파견 등과 같은 정부차원의 지원노력이 필요함.

□ 문화교류 확대 지원

- 멕시코와 한국은 언어, 종교, 민족 등 모든 구성요소들에 있어 상이한 문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교류사업 추진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양국간 공동문화기금 조성, 문화교류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 확대, 지방정부간 자매결연 추진, 양국의 상대지역에 대한 지역연구 장려를 위한 장학금 지원과 같은 문화교류 확대 노력이 필요함.